

단체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진 경 선¹⁾ 김 수 연^{2)*} 정 유 경¹⁾ 송 현 주¹⁾ 송 민¹⁾

¹⁾연세대학교

²⁾경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내 소셜네트워크 단체 채팅방 (단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연구(연구 1)와 심리학 설문 연구(연구 2)를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단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인터넷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댓글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댓글에 동시 출현한 단어 쌍을 이용하여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하였으며,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댓글의 하위 토픽들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가해자/피해자가 속한 환경인 대학과 관련된 단어, SNS 상 언어성폭력의 특징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여성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토픽모델링 결과 댓글의 주요 주제로 교육, 사회문제, 여성비하, 성적표현 토픽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사람들이 단톡방 언어성폭력의 공공성과 그 피해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를 사적 언어성폭력,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중 한 사건의 가상 시나리오를 읽고, 범죄의 크기, 적정 처벌의 정도, 가해자 및 피해자 책임,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사건을 알리는 고발 행위의 도덕성, 고발 행위의 집단 명예 실추 여부, 그리고 고발 의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고발 행위의 도덕성, 고발 의지에 있어서는 단톡방 사건을 직접적 언어성폭력과 유사하게 인식한 반면, 고발 행위의 집단 명예 실추 여부에 대해서는 단톡방 사건을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가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단톡방 언어성폭력 범죄의 크기를 더 낮게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덜 느끼며, 고발 행위의 도덕성을 더 낮게 평가한 반면, 도덕 가치에 있어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의 평등에 가치를 둘수록 범죄 크기,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고발 행위의 도덕성 등을 더 높게 평가하는 등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요어 : 단톡방, 언어성폭력, 태도, 텍스트 마이닝, 학제적 접근

* 이 논문은 2015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11).

† 교신저자 : 김수연,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E-mail : suyeon@kgu.ac.kr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서 휴대폰 메신저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을 통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언어성폭력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조아라, 2017). 공개된 채팅 내용들에 따르면 대학 내 같은 학과나 동아리의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단톡방 내에서 주변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희롱하는 내용 혹은 성폭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수진, 2016). 사건의 피해 여학생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구자운, 2016), 이러한 대화를 원치 않는 여러 남학생들 역시, 단체에서 단절될 것이 두려워 단톡방 대화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느끼고 있다(허승, 이재욱, 2016). 또한 가해자들이 단톡방 대화가 사적인 대화이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박광연, 2016).

법원은 단톡방 대화가 글로 보존되고 손쉽게 내용을 복사·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톡방을 공개적인 공간으로 본다. 실제로 단톡방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모욕적 대화에 대해 법원은 대화의 공개적 전파성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하곤 있다(신나리, 2016). 또한 모 대학 남학생들이 단톡방 내에서 언어성폭력이 포함된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이 공개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무기정확 처분이 부당하며 소송을 낸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홍인기, 2016).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남성 직원 두 명이 컴퓨터 메신저로 동료 여성 직원을 성적 비하한 사건이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하나, 2017).

이러한 일관된 법률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이 비도덕적이며 처벌의 대상인가?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이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톡방 내에서의 비공개 대화가 윤리적 단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김도형, 차길호, 2016). 예를 들어, 법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 사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사건을 비도덕적으로 판단하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러한 대화는 사적 대화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를 미미하게 인식하거나, 사건이 윤리적 단죄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을 단톡방 구성원이 '내부 고발' 하는 것은 옳은가? 단톡방 언어성폭력이 공개된 경로는 다양하나, 이 중 다수의 경우는 단톡방 내 구성원이 대화 내용의 문제를 인지하여 익명의 대자보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이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역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내부 고발을 정의를 실현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비공개 대화를 공개하는 이러한 행위가 소속 집단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언론 보도 및 여론을 통해 드러나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에 대한 태도의 일화적 관찰을 넘어, 문헌정보학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연구(연구 1)와 심리학 연구(연구 2)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학술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가능한 현실에 가깝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해 단톡방 언어성폭력 인터넷 기사에 달린 사람들의 댓글을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언어성폭력에 대한 상충된 태도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의 시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실제 언어성폭력 사건을 각색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태도를 설문 조사하고, 태도의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 1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은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소담, 양성병, 2015).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은 기사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방법으로(김정훈 외, 2015), 최근 특정 이슈와 관련된 여론 분석에서 온라인 댓글

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조수선, 2007; 박창호, 2014).

온라인 텍스트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양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현재 사회의 여론을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하나 등(2013)은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감성분석을 수행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긍/부정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박근혜' 이름으로 검색한 뉴스 댓글의 긍/부정 지수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텍스트 분석 방식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 기법은 댓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댓글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수연, 김현정, 정수연(2006)은 온라인상의 댓글, 게시글, 채팅글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데이터들이 함축하고 있는 성차별적 토픽을 도출하여 온라인상의 성차별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외모에 근거한 성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여성 역할에 근거한 성차별, 남성 외모에 근거한 성차별,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 총 7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토픽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차별성은 대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외모에 근거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가 온라인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최근 한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의 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댓글 분석만으로도 효율적으로 감지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정효정 외, 2016).

이처럼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의 여론 파악이나 주제 분석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단어 동시출현 기법과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대량의 댓글을 분석을 통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데이터

3개의 검색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에서 단톡방 언어성폭력과 관련된 뉴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 및 사건이 발생한 대학과 관련된 단어인 “카톡, 단톡, 카카오톡, 단체톡, 대학, 성희롱, 성폭력, A대, B대, C대, D대, E대(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대학명)”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201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행된 뉴스를 수집하였다. 1차로 수집된 뉴스에서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뉴스는 제외시키고 최종 수집된 뉴스와 댓글 수, 댓글을 단 이용자 수는 표 1과 같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에서 총 564건의 뉴스가 수집되었으며, 뉴스에 달린 댓글은 총 28,723건, ID로 구분된 이용자 수는 17,917명이다.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 인식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당시 가장 최근에 발생한 A대학교의 언어성폭력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 2차 데이터를 수집하였

표 1. 1차 데이터 수집 현황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228	117	219
댓글	24,457	3,271	995
이용자	13,129	2,652	2,136

표 2. 2차 데이터 수집 현황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29	21	6
댓글	4,540	907	834
이용자	2,783	840	656

다. 검색 시 사용된 키워드는 “카톡, 단톡, 카카오톡, 단체톡, 성희롱, 성폭력, A대”이며, 수집된 뉴스의 발행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1월이다. 수집된 뉴스는 모두 56건, 댓글은 총 6,281건, ID로 구분된 이용자 수는 4,279명이며 각 검색포털 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연구 도구 및 절차

한글 전처리

수집된 댓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한글 전처리 도구로 twitter-korean-text_v4.4(<https://github.com/twitter/twitter-korean-tex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다른 한글 전처리 도구에 비해 불완전한 문장이나 오타를 교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상의 댓글을 전처리하는 데 보다 적합한 도구이다. 한글 전처리를 위해 우선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한 후,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어간을 추출한다. ‘이’, ‘저’, ‘그’ 등 말뭉치에서 주제적인 의미 분석에 불필요한 불용어를 제거하여 단어

를 정제하였다.

단어 빈도분석

수집한 댓글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단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어 동시출현 분석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을수록 주제적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이용자들의 댓글에서 특정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단순 단어 빈도분석만으로는 댓글에 자주 사용된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에서 노드(node)는 단어를, 노드를 연결하는 선인 에지(edge)는 동시출현빈도를 나타낸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Gephi(<https://gephi.org/>)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후, 동시에 자주 출현하는 단어들을 한 그룹으로 구분해주는 커뮤니티 알고리즘(Blondel 외, 2008)을 이용하여 자주 동시출현한 단어들의 그룹을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

수집된 대량의 댓글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Blei, Ng, Jordan과 Lafferty(2003)에 의해 제안된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은 확률 기반 문헌 분석 모델이다. 각 문헌집단은 토픽의 확률적인 혼합체이며, 각 토픽은 단어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확률을 기반으로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범주화된 단어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각 토픽 범주에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의 개수는 5, 10, 20, 30, 40, 50인 경우로 토픽모델링을 수행 한 후, 가장 적절하게 토픽이 도출된 경우인 토픽의 개수가 10일 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수집 데이터 기초 통계

각 포털에서 댓글이 많이 달린 상위 5개 뉴스기사의 제목, 발행처, 발행일자, 댓글 수는 아래와 같다. 같은 뉴스기사라도 포털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댓글 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 네이버

- 1) 고려대 남학생들 카톡방서 여학생 집단 성희롱 (한국일보) 2016.06.14 - 5,625
- 2) “여자 주문할게 배달 좀...” 연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중앙일보) 2016.09.04 - 3,847
- 3) 우리끼리니까... 단체 채팅방 뒤에 숨은 성범죄 (한국일보) 2016.07.12 - 3,471
- 4) [팩트체크] 단톡방 ‘우리끼리 음담패설’ 괜찮은 건가? (JTBC) 2016.06.15 - 2,796
- 5) 도 넘은 명문대생들의 일탈...“입시 위주 교육이 원인” (연합뉴스) 2016.06.22 - 1,532

• 다음

- 1) [단독] 서울대 단톡방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소름끼쳤다” (경향신문) 2016.07.11 - 785
- 2) 고려대 “카톡방 언어성폭력 고발합니다” 대자보 파문 (한겨레) 2016.06.14 - 737
- 3) [재판정] 카톡 1:1 대화도 처벌 대상인가?

(노컷뉴스) 2016.06.15 - 276

- 4) [단독] 서울대, 이번엔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 논란 (헤럴드경제) 2016.07.13 - 163
- 5) 서울대 단톡방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자의 ‘장난’ 발언에 많이 울었다” (경향신문) 2016-07.12 - 153

• 네이트

- 1) “동기 먹어라 · 묶어놓고 패야”...서울대서도 카톡방 성희롱 (연합뉴스) 2016.07.11 - 213
- 2) 이번엔 연세대서...또 터진 ‘단톡방 성희롱’ 내용 보니 (JTBC) 2016.09.02 - 145
- 3) “여자 주문할게 배달 좀...” 연세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중앙일보) 2016.09.04 - 122
- 4) 염재호 고대총장 “카톡방 성희롱, 특별대

책팀 꾸려 조사” (연합뉴스) 2016.06.15- 107

- 5) 도 넘은 명문대생들의 일탈...“입시 위주 교육이 원인” (연합뉴스) 2016.06.22 - 107

1차로 수집된 뉴스기사의 댓글을 대상으로 단어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5개 단어는 표 3과 같다.

언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성별이기 때문에 댓글에서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했고, 댓글 작성자들은 특히, 이 사건이 소위 명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끼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언어성폭력 사건을 남자 ‘끼리’의 대화라는 집단

표 3. 출현 빈도기반 상위 15위 단어

순위	네이버	다음	네이트	전체 데이터
1	남자	남자	남자	남자
2	여자	여자	여자	여자
3	사람	사회	사람	사람
4	문제	공부	문제	문제
5	생각	놈	끼리	생각
6	끼리	사람	생각	끼리
7	놈	쓰레기	놈	놈
8	공부	문제	고대	공부
9	고대	생각	명문대	고대
10	사회	고대	단톡방	사회
11	단톡방	교육	그냥	교육
12	처벌	대학	개	처벌
13	교육	인간	진짜	단톡방
14	진짜	수준	공개	수준
15	좀	나라	공부	대학

에 대한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은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한 결과이다. 노드(단어)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으로 동시에 출현한 단어가 많을수록 크게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엣지로 표시하였다. 단어의 색깔은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통해 밝혀진 단어의 그룹으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자주 출현한 단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크게 주요 3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왼쪽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언급된 단어 그룹(공부, 교육, 대학, 학교, 명문대, 배우다, 서울대, 고대, 수준, 학생 부모 등), 두 번째로는 이전의 음담패설과는 달리 단톡방에 기록으로 남겨지는 언어 성폭력을 공개하고 폭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단어 그룹(단톡방, 음담패설, 처벌, 친구, 공개, 개인, 농담 등), 세 번째로는 여성혐오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단어 그룹(피해자, 메갈, 꼴페미, 년, 강간, 성희롱, 표현 등)이다.

2차 분석은 A 대학교의 사건만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서 심화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단어(노드)는 1045개, 단어 동시출현 쌍(엣지)는 5,830개이며, 단어의 평균 출현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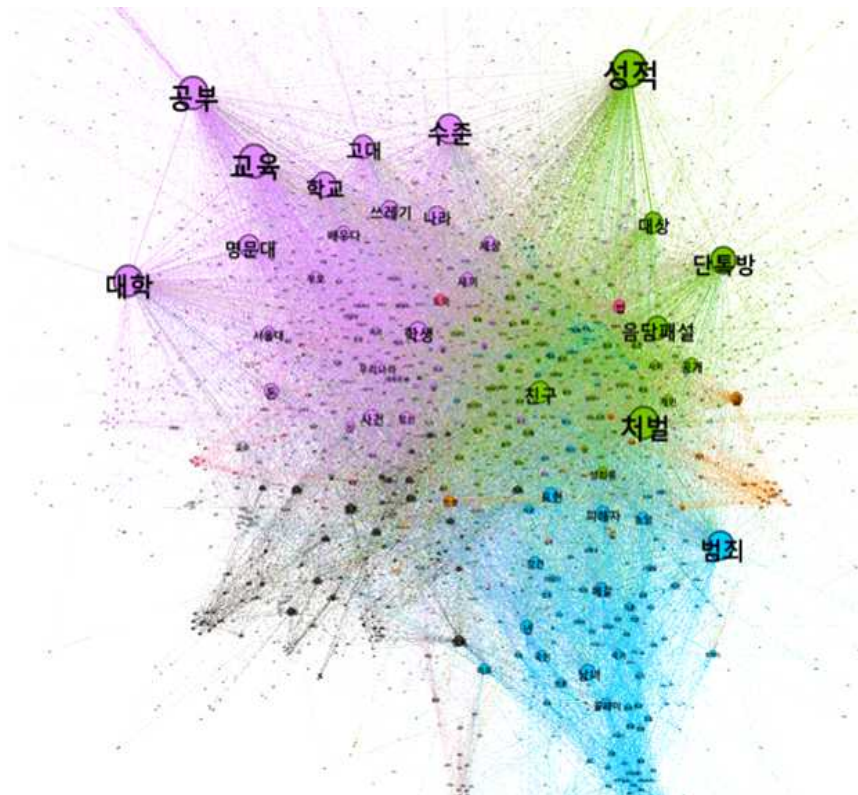


그림 1. 단어동시출현 네트워크

르 이체서 나다 트.

네트워크 중심에 ‘여자’, ‘남자’라는 단어가 위치하고, ‘남자’ 보다는 ‘여자’와 더 많은 단어가 동시출현하고 있다. ‘여자’와 동시 출현한 단어는 네트워크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혐오 및 피해자인 여성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려고 하는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타

- 296 -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10개의 세부 토픽으로 분석했을 때, 각 토픽별 상위 단어는 표 4와 같으며, 토픽명은 각 토픽별로 도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부여한 것이다.

토픽 1(단톡방 대화 일반)은 단톡방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 2(교육), 4(대학)를 보면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인성교육이 부족한 현실과 명문대로의 진학이 목표인 우리사회 교육의 문제와 연관지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실망을 표출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픽 3(단톡방 대화)처럼 이것은 단순히 단톡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여전히 성 차별주의적 시

각에서 이것은 남자들끼리의 문화라는 인식과, 이것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6, 7, 8, 9, 10은 모두 여성과 관련이 있으며, ‘페미나치’나 ‘꼴페미’ 등 여성 비하표현이나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여자들도 쉽게 보이는 행동을 했으니 저런말이 나오지 어휴 하여간 개념없는 일부 남자 여자들땀에 일반 대다수가 욕먹네”나 “대학로 가봐라. 가관이다. 계집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뒥굴어 다닌다. 그러면서 성폭행이 무섭다느니 밤길이 무섭다느니 하지 마라. 니들 몸은 니들이 지키는거다.”처럼 여성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여성이 그럴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댓글들도 있으며, 또 “아요즘 쇼핑몰 모델같이 몸매 좋고 타이트한 짧은치에 하이힐 신은 여자보면 왜케꼴리지”와 같이 다른 언어

표 4.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번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토픽 6	토픽 7	토픽 8	토픽 9	토픽 10
토픽명	단톡방 사건 일반	교육	단톡방 대화	대학	사회 문제	여성 비하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	성적 표현
1	여자	인성	대화	연대	사회	년	성희롱	여자	남자	여자
2	남자	공부	단톡방	대학	문제	여성	시위	남자	여자	생각
3	사람	교육	얘기	수준	생각	메갈	딸	한국	범죄	이야기
4	왜	놈	성희롱	인성	도덕	페미나치	정신	일본	성범죄	성적
5	놈	부모	문제	공부	법	남성	엄마	한남	자유	표현
6	단톡방	잘하다	생각	연세대	인식	남자	인생	성매매	성희롱	남자
7	생각	대학	공개	명문대	문화	페미니즘	누나	배달	성범죄자	사회
8	자다	사회	음담패설	고대	인터넷	꼴페미	생각	녀	농담	남성
9	성희롱	배우다	개인	학교	농담	평등	놈	꼴페미	표현	타락
10	댓글	쓰레기	남자들 끼리	지잡대	윤리	댓글	사회	원정	성추행	관심

성폭력을 댓글에서 행하는 작성자도 있었다.

위의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의 온라인 댓글 문화에서 보다 발전적인 온라인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온라인 양성평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온라인 공간 안에서의 양성평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픽 5(사회 문제)의 경우, 도덕, 인식, 법, 문화, 문제 등과 같이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표출한 단어들의 범주로 발견되었다. 표 4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상위 단어 이외의 단어들을 좀 더 살펴보면, 성교육, 반성, 해결, 여성혐오, 폭력, 운동, 폐지, 억압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단순히 특정 가해자의 문제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에 대해 모색하려는 시각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위와 같은 토픽 분석은 언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다분히 성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단톡방에서의 언어성폭력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뉴스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댓글을 통해서도 2차 언어성폭력이 나타나고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덕이나 법, 문화, 인식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교육과 대학에 대한 단어 범주를 통해 사람들이 지성의 공간인 대학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사람들

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제로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댓글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연구 2

연구1의 결과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충적 의견들이 존재하며, 성차별적 시각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들도 상당히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은 무엇일까? 연구 2에서는 1)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다른 맥락의 언어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고, 2)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 개인차를 탐색하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는 비공개 단톡방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사람들이 단톡방 내 대화를 얼마나 공적인 또는 사적인 대화로 여기는 지 여부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단톡방 내 대화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공적인 대화라고 여길수록, 피해자의 주변인이나 피해자가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여, 사건을 보다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끼며, 이러한 대화를 멈추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는 행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사람들이 단톡방 언어성폭력 대화를 얼마나 공적인 혹은 사적인 대화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톡방 언어 성폭력 가상

시나리오를 두 가지 다른 대화 맥락의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맥락: 대화에 언급되는 여성이 자리에 없는 오프라인 대화, 직접적 언어성폭력 맥락: 상대 여성에게 직접 문자 혹은 대화로 전달하는 언어성폭력)와 비교하였다. 각 맥락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범죄의 크기 및 가해자에 게 합당한 처벌의 크기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책임을 얼마나 높게 판단하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동정심을 느끼는지, 사건을 외부로 알린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며, 본인은 얼마나 이를 외부로 알리겠느냐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비공개 대화인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 대화를 1) 대화가 언급되는 여성이 자리에 없는 오프라인 상의 사적인 대화에 가깝게 바라보는지, 2) 단톡방 공간을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언어성폭력에 가깝게 바라보는지, 혹은 3) 공적, 사적 대화 맥락을 불문하고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성폭력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충적 태도가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차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성폭력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 및 태도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들을 연구해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개인차 변인인 성 차별주의(Glick & Fiske, 1996)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전통적인 수동적 역할에 고정하여 지각하려는 성향으로, 다른 사회적 차별과는 달리 양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적대적

성 차별주의(hostile sexism)는 여성이 여권운동이나 신체적 매력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도전하고 위협한다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이며, 온정적 성 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는 외적으로는 여성에게 친밀하고 호의적 태도를 보이나,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여전히 전통적 여성상에 고착하여 인식하는 태도이다. 흥미롭게도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대적 성 차별주의와 온정적 성 차별주의가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 충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강간 통념과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윤병해, 고재홍, 2006). 또한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폭력 수용의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가해자에게 더 낮은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더 낮게 판단한다(김은지, 박지선, 201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기존에 신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상관을 보인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도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 판단 기준의 개인차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이 도덕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느냐는 정치적 성향, 사회 현상이나 범죄 사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Graham 외., 2009; Niemi & Young, 2016). 도

덕적 기초 가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 Graham et al., 2011)은 공정성(fairness), 위해를 방지하려는 성향(harm), 내집단 충성(ingroup loyalty), 권위에 대한 복종(obedience to authority), 그리고 순수성(purity)이 인간의 보편적이고 태생적인 도덕적 가치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치는 문화 보편적으로 존재하나, 문화나 개인마다 이 중 어떠한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가치 중,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는 집단적 가치(binding values;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복종, 순수성)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적 가치보다(individualizing values; 공정성, 위해방지) 더 중요시할수록, 신체 성폭력 사건이나 강도 사건의 가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한다(Niemi & Young, 2016). 또한 내집단 충성보다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개인일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상의 범죄 사건을 신고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높게 나타냈다 (Waytz, Dungan, & Young, 2013).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 차별주의 척도 (Glick & Fiske, 1996;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와 도덕적 가치 문항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s(MFQ); Graham et al., 2011; Kim, Kang, & Yun, 2012)을 측정하여, 성 차별주의를 높게 수용하거나 도덕적 가치에 있어 내집단 충성 가치를 공정성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할수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범죄 크기, 처벌 크기, 가해자의 책임 등을 더 낮게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덜 느끼며,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더 부적절하게 여기는 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참가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 남녀 435명($M_{age} = 33.4$, $SD_{age} = 7.1$; 남성 59%)이 온라인 설문 업체 사이트를 통해 참가 사례비(450원)를 받고 설문에 참가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n = 5$)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온라인 상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화 맥락은 참가자 간 변인으로 조작되어, 각 145명의 참가자들은 단톡방 언어성폭력 대화, 당사자가 자리에 없는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대화, 당사자에게 직접 언어성폭력을 가하는 직접적 언어성폭력 대화 맥락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연구 도구

언어성폭력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일어나 언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http://www.humanrights.go.kr/>)에 공개된 언어성폭력 사건을 신문 기사처럼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각 시나리오를 읽기 전 아래와 같은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최근 서울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생한 실화를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음의 사건을 상

세히 읽고 당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시문에 이어 제시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단톡방 언어성폭력]

A 대학교 한 학과의 학번 대표와 학생 회장단 등이 포함된 남학생 단체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대화가 오갔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학과 간부가 같은 학과 학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는 제보에 수많은 학생이 충격에 휩싸였다. 16일 A대학교 대나무숲(익명 제보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이날 중앙도서관 정문에 대자보가 붙었다(아래 예시 참조). 대자보에는 지난해 4월 A대 한 학과의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에서 벌어졌던 낯뜨거운 성적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익명의 남학생은 이러한 대화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여학생의 성기를 묘사하는 대화도 있었다.

<예시 1>

A: 배고픈데 먹을 거 없냐?

B: 유경이 먹어.

A: 여자는 첫 만남에 강간해버려야 하는데.

B: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니 봉지 씌워서 해.

<예시 2>

A: 유절무죄 무절유죄 당신은 유죄?

B: ㅋㅋㅋㅋㅋ

C: 미연 유죄.

A: 무절은 유죄야. 그런 의미에서 미연이한테 집유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시나리오 2: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B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 남학생들이 동기, 후배 여학생 및 인근 여대생 등에 대한 성희롱 대화를 자신들끼리 모인 술자리나 과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었다(아래 예시 참조). 익명의 남학생은 이러한 대화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부터 성희롱, 특정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과 같은 성폭행 가능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어있다.

<예시 1>

A: 미영이는 어때? 다 맛 불라고 하네.

B: 미영이는 먹혔잖아.

C: 누가 먹었냐?

B: 미영이 애인이 먹었지. 근데 넌 임자있는 애들만 좋아하냐?

A: 난 씹던 껌 성애자야. 단물 다 빠진 게 좋아.

<예시 2>

A: 와, B야, 너 희영이네 집에 가 봤다며?

B: 어, 좋던데?

- C: 섹스했나? 그래서 했어?
 B: 하루만 재워줄 사람 필요하면 희영이 집에서 자.
 A: 희영이는 돼지 같이 생겨가지고 허벅지 근육 파열되는 거 아냐?

[시나리오 3: 온·오프라인 직접적 언어성폭력]

C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에게 오프라인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었다(아래 예시 참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수차례 더 이상 이러한 언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자, 자신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염려되어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외모에 대한 비하부터 성희롱, 성폭행 가능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시>

“나랑 술도 먹고 모텔도 가자. 난 너랑 도장 한 번 찍어야겠다.”

“너는 살결이 보드라운 거 같아. 너 허벅지는 꿀벅지라 만져보고 싶다.”

“전 남자 친구랑 자랐냐? 밤일을 아주 잘 할 것 같다.”

“넌 못생겨서 돈 모아서 성형 수술 좀 해야겠다.”

“넌 왜 이렇게 엉덩이가 크냐? 운동 좀 해야겠다.”

참가자들은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한 시나리오를 읽고, 1) 가해자(대화에 참여한 남성)가 피해자 (대화에 언급된 여성)에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 2) 가해자가 얼마나 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 가해자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4)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 피해자에게 얼마나 동정심을 느끼는지, 6) 이 사건을 고발하여 알린 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7) 이 사건을 알린 것이 얼마나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8) 만약 본인이 우연히 본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이를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양가적 성 차별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 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 차별주의 척도를 토대로 안상수 외(2005)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한국형 양가적 성 차별주의 척도(K-A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대적 성 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18개와 온정적 성 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18개, 총 3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적대적 성 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은 “여성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여성은 성적으로 순진한 척 해서 남성이 매달리게 만든다.” 등이며, 온정적 성 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은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등으로,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 차별주의를 높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적대적 성 차별주의의 경우 .96, 온정적 성 차별주의의 경우 .94이었다.

도덕적 가치 척도

본 연구에서는 Granham 외(2011)가 개발한 도덕적 가치 척도 한국어 번역판(Kim, Kang, & Yun, 2012)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도덕적 판단에 있어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정성과 집단의 화합에 대한 내집단 충성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성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는 “정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이며, 내집단 충성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집단의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다. 6점 척도의 3개의 문항이 각 도덕 가치를 측정하여,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공정성 점수에서 내집단 충성 점수를 뺀 공정성-내집단 충성 점수를 계산하였다(Waytz 외, 2014). 즉, 이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들이 도덕 판단 시, 사건이 집단의 화합을 얼마나 저해했는가보다는 개개인이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더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는 (Cronbach's α) 공정성의 경우 .71, 내집단 충성의 경우 .66이었다.

연구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세 가지 가상의 언어성폭력 시나리오 (단톡방 언어성폭력,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온·오프라인 직접적 언어성폭력) 중 하나의 읽은 후,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태도 설문에 응답을 하였으며, 이후 개인차 변인 문항인 성 차별주의 척도와 도덕적 가치 척도에 응답을 하였다.

결과 및 논의

대화 맥락에 따른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대화 맥락 조건, 성별 사전 분석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하여 언어성폭력 맥락(단톡방, 오프라인 사적, 온·오프라인 직접적)과 성별을 피험자 변인으로 3×2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모든 태도 문항에 있어서 성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표 5). 즉, 언어성폭력 맥락과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가해자가 더 큰 범죄를 지었다고 인식하였고, $F(1, 429) = 34.47, p = .000$,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F(1, 429) = 27.31, p = .000$, 가해자의 책임은 더 높게, $F(1, 429) = 32.74, p = .000$, 피해자의 책임은 더 낮게 인식하였고, $F(1, 429) = 18.79, p = .000$,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을 보였다, $F(1, 429) = 38.61, p = .000$.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사건을 외부로 알린 것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F(1, 429) = 28.90, p = .000$, 이러한 고발 행위가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F(1,$

표 5. 사전 분석: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녀 태도의 평균 (괄호 안: 표준편차)

	범죄의 크기	법적 처벌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동정심	고발의 도덕성	내집단 명예	고발 의지
남 (N = 257)	5.41 (1.36)	5.31 (1.34)	5.47 (1.34)	3.71 (2.00)	5.37 (1.32)	5.51 (1.25)	4.19 (1.94)	5.00 (1.40)
여 (N = 178)	6.15 (1.21)	5.97 (1.28)	6.20 (1.32)	2.88 (2.03)	6.13 (1.29)	6.12 (1.29)	3.10 (2.06)	5.33 (1.54)
F	34.47***	27.31***	32.74***	18.79***	38.61***	28.90***	35.02***	6.79*

* $p < .05$, ** $p < .01$, *** $p < .001$

429) = 35.02, $p = .000$,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러한 일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높게 보였다, $F(1, 429) = 6.79$, $p = .010$.

즉, 여성들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언어성폭력 사건을 보다 심각한 범죄로 느끼고 있으며, 가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피해자의 책임을 더 작게 느끼고 있고, 더불어 사건을 외부로 고발하는 것을 더 옳은 행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언어성폭력 맥락 변인(단독방 언어성폭력,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온·오프라인 직접적 언어성폭력)과 성별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F(2, 429) < 2.2$, $ps > .12$. 따라서 아래의 대화 맥락 조건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주요 분석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화 맥락 조건 주요 분석

언어성폭력 시나리오 맥락, 즉 단독방 언어성폭력,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온·오프라인 직접적 언어성폭력에 대한 참가자들의 태도 점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세 가지의 언어성폭력 맥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MANOVA 분석 결과, 범죄의 크기, 법

적 처벌,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 변인에 대해서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432) < 1.6$, $ps > .22$. 즉, 이는 어떠한 언어성폭력 맥락이든 상관없이 범죄의 크기, 법적 처벌,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 변인을 동일한 정도로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문항에서는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32) = 6.80$, $p = .001$.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들은 오프라인 사적 대화 시나리오보다 단독방 대화 시나리오와 직접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에서 피해자에 대한 더 큰 동정심을 보였다. 단독방과 직접적 언어성폭력 맥락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고발하여 알린 것이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32) = 10.77$, $p = .000$.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들은 오프라인 사적 대화 시나리오보다 단독방 대화 시나리오와 직접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에서 사건을 외부로 알린 것이 더 도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단독방과 직접적 언어성폭력 맥락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가자들 본인이 우연히 집단 내에서 이러

표 6. 주요 분석: 언어성폭력 맥락 별 사건에 대한 태도의 평균 (괄호 안: 표준편차)

	범죄의 크기	법적 처벌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동정심	고발의 도덕성	내집단 명예	고발 의지
단톡방 (<i>N</i> = 145)	5.74 (1.44)	5.58 (1.41)	5.83 (1.44)	3.19 (2.11)	5.91 (1.27)	5.89 (1.24)	3.99 (2.09)	5.23 (1.50)
오프라인 사적 (<i>N</i> = 145)	5.63 (1.29)	5.44 (1.34)	5.61 (1.36)	3.59 (1.96)	5.35 (1.43)	5.37 (1.46)	3.93 (2.00)	4.74 (1.53)
직접적 (<i>N</i> = 145)	5.77 (1.32)	5.72 (1.30)	5.87 (1.31)	3.33 (2.08)	5.77 (1.32)	6.02 (1.10)	3.32 (2.03)	5.42 (1.28)
<i>F</i>	.41	1.51	1.48	1.47	6.80**	10.77***	4.86**	8.51***
사후검증 (Tukey)					$a > b^{**}$, $c > b^{*}$	$a > b^{**}$, $c > b^{***}$	$a > c^{*}$, $b > c^{*}$	$a > b^{*}$, $c > b^{***}$

* $p < .05$, ** $p < .01$, *** $p < .001$ (a: 단톡방, b: 오프라인 사적, c: 온.오프라인 직접적)

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32) = 8.51, p = .000$.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들은 오프라인 사적 대화 시나리오보다 단톡방 대화 시나리오와 직접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에서 자신이 사건을 인지한다면 사건을 외부로 더 알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단톡방과 직접적 언어성폭력 맥락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고발하여 알린 것이 얼마나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32) = 4.86, p = .008$. 사후 검증 결과, 참가자들은 직접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보다 단톡방 대화 시나리오와 오프라인 사적 대화 시나리오의 경우, 사건을 외부로 알린 것이 더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바라보았다. 단톡방 대화와 오프라인 사적 대화 맥락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참가자들은 어떠한 대화 맥락이든

상관없이, 언어성폭력 시나리오 상 범죄의 크기, 법적 처벌,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어떠한 대화 맥락이든지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나리오의 심각성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의 크기, 사건을 고발하여 알린 것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리고 참가자들 스스로 사건을 얼마나 외부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화 맥락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위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단톡방 언어성폭력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보다는 온.오프라인 직접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톡방 사건이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참가자들은 최소한 위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하여 이 사건을 가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언어성폭력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

에 근거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사건을 외부로 고발한 것이 얼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조건 별 차이의 경우, 단독방 언어성폭력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위의 세 문항에서와는 달리, 직접적 언어성폭력이 아닌 오프라인 사적 언어성폭력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해 참가자들은 여러 문항에 있어 사람들은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직접적 언어성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이 얼마나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는 여전히 단독방을 사적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 2에서 세 가지 언어성폭력 맥락의 시나리오의 내용이 다르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조건의 효과가 대화 맥락상의 차이가 아닌 대화의 내용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건 간 대화 내용을 역균형화하여 언어성폭력이 발생한 맥락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개인차 변인

표 7는 단독방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에 대한 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과 개인차 변인, 즉 양가적 성 차별주의(적대적 성 차별주의, 온정적 성 차별주의)와 도덕적 가치(공평성-내집단 충성)와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¹⁾.

1) 본 연구의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 상 언어성폭력

먼저, 적대적 성 차별주의는 온정적 성 차별주의 정적 상관($r = .71$)을, 공평성-내집단 충성 점수와는 부적 상관($r = -.59$)을 보였다. 이는 적대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비록 표면 상 여성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거나 여전히 성 차별주의적 요소를 내재한 온정적 성 차별주의를 더 높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도덕 판단 시 상대적으로 내집단 충성에 비해 공평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려는 정도는 더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적대적 성 차별주의는 단독방 언어성폭력 시나리오에 대한 태도에서 피해자 책임($r = .47$)과 사건 고발 행위의 집단 명예 실추 정도($r = .40$)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범죄의 크기($r = -.32$), 법적 처벌($r = -.28$), 가해자 책임($r = -.27$), 피해자에 대한 동정($r = -.26$), 고발의 도덕성($r = -.28$)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적대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내부 고발이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며, 범죄의 크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가해자의 책임, 내부 고발의 도덕성은 더 낮게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더 적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정적 성 차별주의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적대적 성 차별주의와 정적 상관을, 반면 공평성-내집단 충성 점수와는 부적 상관($r = -.47$)을 보였다. 이는 적대적 성 차별주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도덕 판단에 있어서 개개인이 공평,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중시하는 성향이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온정적 성 차별주의는 단독방 언어성 조건에 대한 개인차 결과에 초점을 두어 보고하였다.

표 7.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양가적 성 차별주의, 공정성-내집단 충성 점수들 간의 상관 계수 ($N = 145$)

	2	3	4	5	6	7	8	9	10	11
1	.71***	-.59***	-.32***	-.28***	-.27**	.47***	-.26**	-.28***	.40***	-.12
2	-	-.47***	-.22**	-.16*	.16	.39***	-.20*	.13	.42***	-.03
3		-	.47***	.45***	.50***	-.53***	.37***	.49***	-.39***	.26**
4			-	.85***	.79***	-.17*	.62***	.73***	-.25**	.54***
5				-	.81***	-.19*	.61***	.79***	-.26**	.65***
6					-	-.26**	.71***	.73***	-.30***	.54***
7						-	-.19*	-.18*	.35***	-.00
8							-	.67***	-.28***	.48***
9								-	-.23**	.67***
10									-	-.12

* $p < .05$, ** $p < .01$, *** $p < .001$

1 = 적대적 성 차별주의, 2 = 온정적 성 차별주의, 3 = 공정성-내집단 충성, 4 = 범죄 크기, 5 = 법적 처벌, 6 = 가해자 책임, 7 = 피해자 책임, 8 = 피해자 동정심, 9 = 고발의 도덕성, 10 = 내집단 명예, 11 = 고발 의지

폭력 시나리오에 대한 태도에서 피해자 책임($r = .39$)과 사건 고발 행위의 집단 명예 실추 정도($r = .42$)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범죄의 크기($r = -.22$), 법적 처벌($r = -.16$),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r = -.20$)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위에 언급된 적대적 성 차별주의 척도와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온정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내부 고발이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더 높아지며, 범죄의 크기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 낮게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더 적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성-내집단 충성 점수의 경우, 범죄의 크기($r = .47$), 법적 처벌($r = .45$), 가해자 책임(r

$= .50$), 피해자 동정심($r = .37$), 고발의 도덕성($r = .49$), 고발 의지($r = .26$)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피해자 책임($r = -.53$), 고발이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r = -.39$)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떠한 사건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 그 사건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공정성이 얼마나 중시 혹은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집단의 화합성 손상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범죄의 크기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끼며, 내부 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 역시 그 사건을 고발하려는 의지를 더 높게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책임과 내부 고발이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는 더 낮게 인식하는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전체논의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과 심리학 연구의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학 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은 단톡방 사건을 다룬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일반인들이 현실에서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많은 뉴스기사가 발행되었으며, 약 3만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단어 동시출현 분석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댓글의 주제를 구분하고, 세부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 1) 공부, 대학, 교육, 명문대, 수준 등 언어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었으며, 2) 처벌, 음담패설, 단톡방, 친구, 공개, 대상 등 사이버상의 언어성폭력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한 단어 그룹, 그리고 3) 메갈, 꼴페미, 범죄, 피해자 등 여성혐오를 나타내거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정 대학의 단톡방 내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기사의 댓글을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10개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각 주제는 단톡방 사건 일반, 교육, 단톡방 대화, 대학, 사회문제, 여성비하,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 성적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에 달린 댓글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이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우선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은 여성이 주로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뉴스 댓글에서 여성혐오라는 주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부에서는 성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범죄 정도를 낮게 인식하거나 내부자의 고발을 옳지 않게 판단하려는 일부 여론과 일관된 결과를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댓글에서 사건이 일어난 대학의 교육 장면에 큰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윤리와 도덕, 교육과 같이 단톡방 언어성폭력을 예방하거나 사건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며, 단톡방 언어성폭력을 비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태도들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연구 1에서 나타난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심리학 설문조사 연구법이 수행되었다. 우선 단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가 단톡방을 얼마나 공격 혹은 사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가깝게 인식하는지, 혹은 피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언어성폭력에 가깝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 사건을 외부로 알리려는 신고 행위에 대한 도덕성 평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그 사건을 신고하여 알리겠는가에 대한 의지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맥락과 직접적 언어성폭력 맥락에서 유사함이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적 언어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톡방 사건의 예상 피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하여 고발 등의 적극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것이 얼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단톡방과 오프라인 사적 대화 맥락에서 유사한 태도가 나타났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 고발이 내집단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사적 대화를 공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여론에서 관찰되고 있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내부 고발에 대한 논란의 원인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범죄의 크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의 크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에 있어서는 세 맥락 조건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범죄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있어서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적 대화에서 일어나는 언어성폭력을 직접적인 성폭력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하면, 두 연구 모두에서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뉴스 댓글에서는 여성혐오와 같은 여론과 동시에 교육이나 문제의 개선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동시에 등장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람들이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실제 언어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어느 정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부고발 행위에 있어서는 단톡방 언어성폭력 맥락을 사적 대화 맥락으로 여기는 이중성을 보임을 나타냈다.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해 왜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 연구 2의 개인차 분석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가적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어떠한 대화 맥락이든 상관없이 언어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성폭력 사건이 더 큰 범죄로 여기고, 가해자의 책임은 더 크게, 피해자의 책임은 더 낮게 판단하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꼈고, 사건을 고발한 행위를 더 도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본인이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려는 의지를 더 높게 보였다. 이러한 성차는 신체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를 다룬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차가 비단 신체적 성폭행 뿐만 아니라 일상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발견됨을 보여준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실제 공개된 모든 단독방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성차가 남녀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성별이 시나리오 상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제시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Niemi & Young, 2016)와 같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여러 맥락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의 성차를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체적 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주로 연구된 개인차 변인인 양가적 성 차별주의(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윤병해, 고재홍, 2006)가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 태도의 개인차와도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적대적, 온정적 성 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의 범죄의 크기를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적게 느끼며, 사건의 내부 고발이 집단의 명예를 실추하는 정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차별주의가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현재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독방 대화와 같은 맥락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에도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덕 가치의 개인차가 단독방 언어성폭력 태도와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도덕 판단에 있어서 집단의 화합에 대한 가치보다는 개개인의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중시할수록, 단독방 언어성폭력의 범죄의 크기를 높게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더 동정심

을 느끼며, 내부 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내부 고발을 하려는 의지를 더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성에 대한 고정 관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도덕적 틀 역시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인식 및 평가하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얼마나 공감하며,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개입하며 행동할지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개인차 변인들은 성교육 혹은 도덕 교육 장면에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성 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교육, 더불어 개개인의 권리와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는 도덕 교육은 본 연구에서 탐색한 단독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확립되어 온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조사 연구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학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 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 분석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인터넷 댓글과 같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건에 대한 실제 태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통제된 상황을 주로 연구하는 기존의 심리학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보완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보다 심도 깊게 적용하여 심리학 연구에서 밝힌 개인차 변인과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 간 상관이 댓글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거나, 혹은 댓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심리

학 실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제적 접근은 사회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다 민감하게 측정하고, 나아가 실제 교육 및 정책 분야에도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londel, V. D., Guillaume, J. L., Lambiotte, R., & Lefebvre, E. (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 P10008.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029-1046.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366-385.
- Kim, K. R., Kang, J. 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 173-185.
- Niemi, L., & Young, L. (2016). When and why we see victims as responsible: The impact of ideology on attitudes toward victi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 1227-1242.
- Waytz, A., Dungan, J., & Young, L. (2013). The whistleblower's dilemma and the fairness-loyalty tradeoff.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1027-1033.
- 구자운 (2016). '단톡방 성적협담' 후유증 아직도... 피해자 정신과상담에 2차피해도,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11301739587958>
- 김도형, 차길호 (20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롱 '단톡방' 공개가 사생활 침해?,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712/79142420/1>
- 김소담, 양성병 (2015).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일반댓글과 소셜댓글의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391-406.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 171-183.
- 김정훈, 송영은, 진윤선, 권오병 (2015).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댓글의 공감도 및 비공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의 특성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4*, 159-176.
- 박광연 (2016). 서울대 단톡방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자의 ‘장난’ 발언에 많이 울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052001&code=940100
- 박수진 (2016). 연세대에서도 ‘단톡방 성희롱’ 의혹 폭로,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9515.html#csidx31aa05fcb332e018b1fb25b216cc58a
- 박창호 (2014). 인터넷 매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댓글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분석. *담론* 201, 16, 135-164.
- 신나리 (2016). “무식이 하늘 찌르네” 단톡방 비방은 모욕죄,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905/80132564/1>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36-66.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 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1-19.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97-116.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 65-81.
- 이수연, 김현정, 정수연 (2016). 텍스트마이닝 기반 토픽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성차별성의 이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 159-199.
- 이하나 (2017). 단톡방 언어 성폭력’ 큰 코 다친다… 인권위 “성희롱 성립”,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1398>
- 정효정, 배정환, 홍수린, 박찬웅, 송민 (2016). 정치적 이념에 따른 트위터 공간에서의 집단 간 의견차이 분석. *한국언론학보*, 60, 269-302.
- 조아라 (2017). 독버섯처럼 번지는 ‘단톡방 성희롱’ 대학가 뒤숭숭,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09107g>
- 조수선 (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5(2), 65-84.
- 조하나, 정연오, 이재동, 이지형 (2013). 인터넷 뉴스 댓글의 감성 분석을 통한 오피니언 마이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3, 149-150.
- 허승, 이재욱 (2016). 여혐·음담패설에서 탈출하고 싶은 남성들…출구가 없다?,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2058.html
- 홍인기 (2016). 법원 “단톡방, 사적 공간 아니다” 카톡일언중천금,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5008008>

1차원고접수 : 2017. 04. 23.

심사통과접수 : 2017. 06. 02.

최종원고접수 : 2017. 06. 18.

Attitudes towards sexual comments in group texting

Kyong-sun Jin¹⁾ Suyeon Kim²⁾ Yoo Kyung Jeong¹⁾ Hyun-joo Song¹⁾ Min Song¹⁾

¹⁾Yonsei University

²⁾Kyonggi University

Recently, some cases of college students' violent sexual comments about other-gender classmates in their private group-texting have been reported in Korea. The present research explored people's attitudes toward such cases from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study 1, using a text-mining method, we analyzed users' comments to online news articles of the recent inciden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harassment in group-texting. Co-word networks analysis identified co-occurring word groups of 'college,' 'sexual comments in social-networking context,' and 'misogyny.' Topic-modeling analysis also revealed major topics of the comments, for example, 'education,' 'social problems,' 'degradation of women,' and 'sexual expressions.' In Study 2, we explored people's attitudes towards scenarios of violent sexual comments and whistle blowing in three different contexts—in a group-texting, an offline private conversation, and a direct sexual harassment contexts (as a between-subject design). Participants in the group-texting condition and the direct condition showed higher sympathy to the victim and higher willingness to blow the whistle than did those in the private condition, suggesting that they perceived the group-texting context as public to some degree. However, regarding the reputation of ingroup, participants in the group-texting and in the private conversation conditions rated the whistle blowing as more damaging to the reputation of ingroup than did those in the direct condition. The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scenarios and two measures of individual differences (ambivalent sexism, a fairness-loyalty tradeoff)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group-texting, sexual harassment, attitudes, text min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